

## 경남 청년들의 삶과 인식

<u>01.</u> 청년 삶 실태조사 및 분석 개요	<u>02.</u> 경제적 여건 및 불평등 인식	<u>03.</u> 사회 갈등 인식 및 번아웃 경험 여부	<u>04.</u> 향후 계획 및 정책 수요	<u>05.</u> 결론 및 향후 정책 방향
------------------------------------	----------------------------------	---------------------------------------	--------------------------------	--------------------------------

- 청년기는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으로 학업, 취업, 결혼 및 출산 등 안정된 성인기를 맞이하기 위한 많은 생애과정을 경험하는 시기임. 그러나 이행기 청년은 외부 구조의 변화와 개인간의 격차 등으로 이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시기에 맞이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은 지연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최근에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 간의 격차가 확산됨으로써 청년 집단 안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확인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생활 만족, 그리고 인식 등에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전국 평균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년들의 인식수준과 경험을 경남 청년과 비교함으로써 지역사회 청년 특성을 파악하고 경남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 01. 청년 삶 실태조사 및 분석 개요

#### · 조사 개요

- 청년 삶 실태조사는 만 19세~34세의 청년가구원을 포함하는 전국 14,966 가구를 대상으로 청년들의 주거, 건강, 교육 및 훈련, 노동, 관계 및 참여, 사회인식 등 청년 삶 전반에 관한 대표적인 청년통계 중 하나임
- 해당 조사는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하여 2022년 7월부터 8월 까지 실시되었으며, 청년들의 장기적인 시계열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2년마다 실시하도록 「청년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
- 전체 청년 응답자 14,966명 중(여성 7,795명(52.1%), 남성 7,171명(47.9%)) 경남 청년은 총 946명이며 이 중 여성은 488명(51.6%), 남성은 458명(48.4%)임
-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전국 평균과 경남 평균 간의 차이 분석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삶과 인식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은 1)경제적 여건 및 불평등 인식, 2)사회 갈등 인식 및 번아웃 경험 여부, 3)향후 계획 및 정책 수요와 관련한 전국과 경남 청년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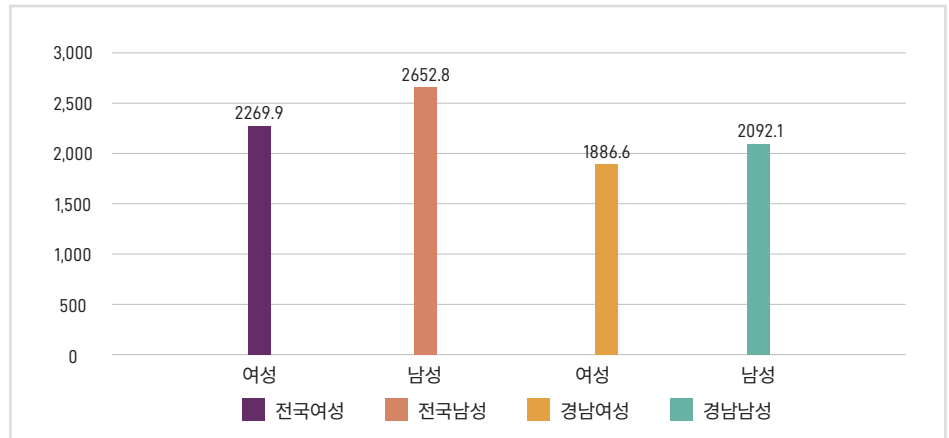
## 02.경제적 여건 및 불평등 인식

### 청년 연간 총소득

- 청년들의 연간 총 소득(근로·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을 살펴보면, 경남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전국 평균 청년 여성들의 연간 총 소득은 2,269.9만원, 남성은 2,652.8만원임. 그러나 경남 여성들의 연간 총소득은 1,886.6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83.3만원 적고 경남 청년 남성의 연간 총 소득은 2,092.1만원으로 전국보다 560.7만원 적음

(단위: 만원)

그림1 청년 연간 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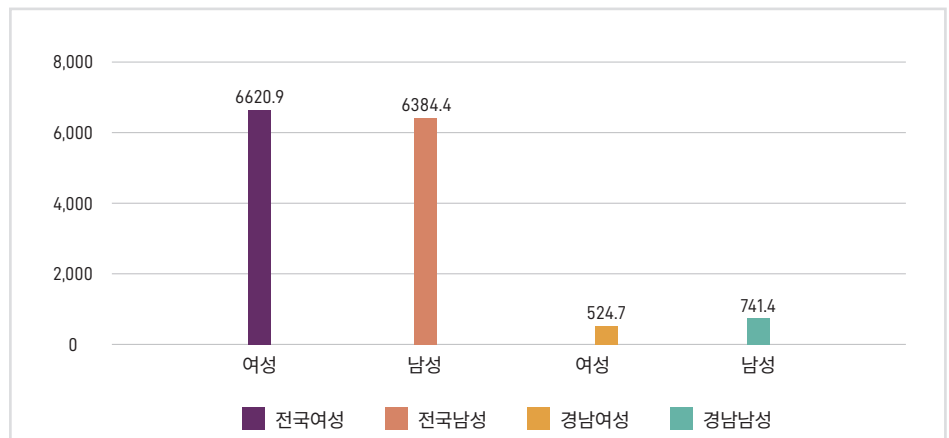


### 청년 부채액

- 청년들의 총 부채액(금융기관대출+전세(임대)보증금+할부구입+외상+기타부채)은 전국 평균과 경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전국 평균 청년 여성들의 총 부채액은 6,620.9만원, 청년 남성들의 부채액은 6,384.4만원으로 확인됨. 한편, 경남 청년 여성들의 총 부채액은 524.7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6,096.2만원 적고, 남성은 741.4만원으로 전국보다 5,643만원 적음

(단위: 만원)

그림2 청년 총 부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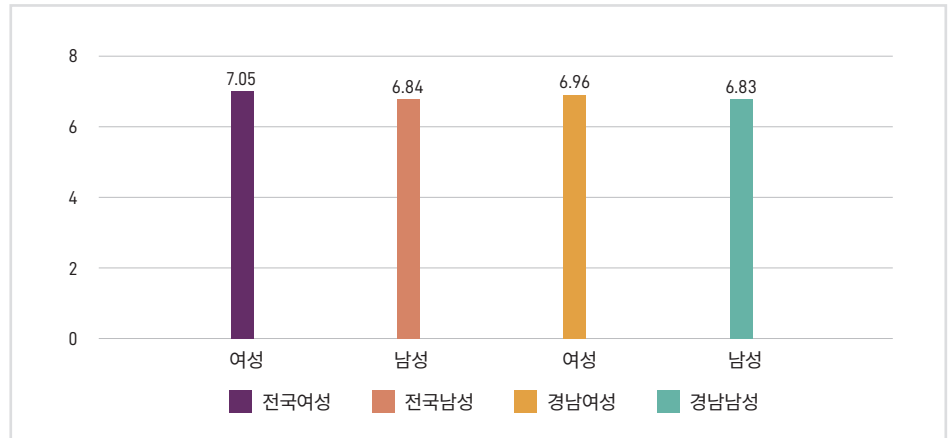


## 불평등에 관한 청년 인식 수준

- 불평등에 관한 청년 인식 수준을 살펴봄. 척도는 1점에서 10점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우리 사회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함
- 불평등에 관한 인식은 경남 청년들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음. 경남 청년 여성들의 불평등 인식 평균 값은 6.96점(전국 평균 7.05점)이고 경남 청년 남성은 6.83점(전국 평균 6.84점)임

(단위: 점)

그림3 불평등 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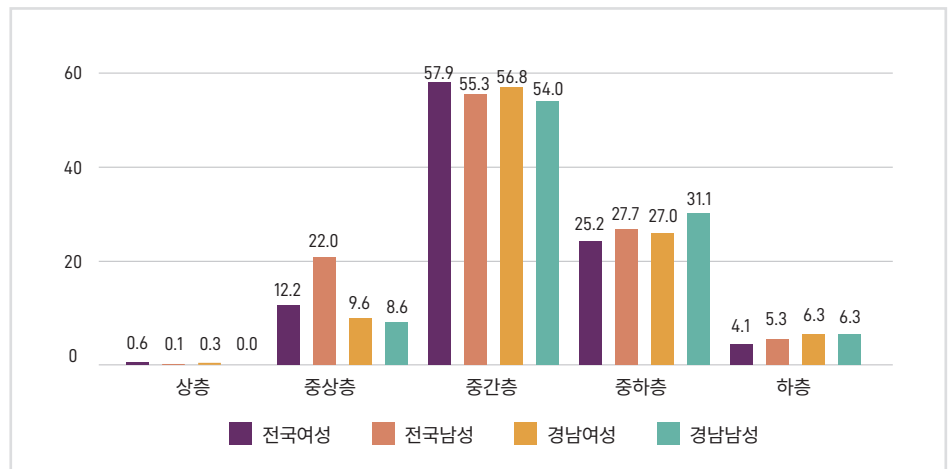


## 청년 소득계층 인식 수준

- 청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득계층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경남 청년들이 전국 평균보다 본인의 계층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
- 본인의 소득계층을 중상층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는 전국 청년 여성 중 12.8%, 그리고 남성은 22.1%임. 그러나 경남 청년 여성은 9.9%, 그리고 청년 남성은 8.6%만이 본인의 소득계층을 높게 평가함
- 그러나 본인의 소득계층을 중하층 이하로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경남 청년들의 응답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많음. 경남 청년 여성 중 33.3%, 그리고 남성은 37.4%가 본인의 소득수준을 중하층 이하로 평가해 전국 평균(여성 29.3%, 남성 33.0%)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됨

(단위: %)

그림4 소득계층 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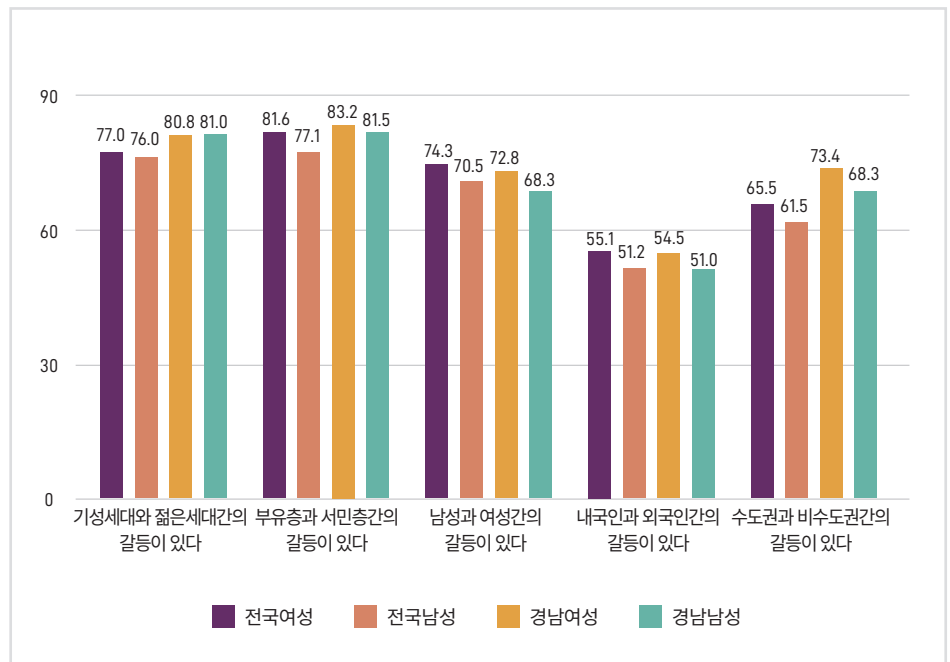
### 03.사회 갈등 인식 및 번아웃 경험 여부

#### ▪ 집단 간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 수준

-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부유층과 서민층/수도권과 비수도권/남성과 여성/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집단 갈등에 관한 청년들의 인식 수준을 살펴봄
-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 부유층과 서민층 간의 갈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에 관해서는 경남 청년들의 갈등 인식 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경남 청년 여성과 남성 각각 80.8%, 81.0%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전국 청년 여성 평균 77.0%, 청년 남성 평균 76.0%), 부유층과 서민층 간의 갈등은 83.2%, 81.5%가 갈등이 있다고 응답해 전국 평균 응답(여성 81.6%, 남성 77.1%)보다 갈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전국 청년 평균보다 갈등 정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경남 청년 여성은 73.4%, 남성은 68.3%가 갈등이 있다고 응답해 전국(여성 65.5%, 남성 61.5%)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 정도를 매우 높게 평가함
- 그러나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보다 갈등 정도를 낮게 평가함. 경남 청년 여성과 남성 중 남녀간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72.8%, 68.3%로 전국 평균(여성 74.3%, 남성 70.5%)보다 낮음.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경남 청년 여성과 남성은 각각 54.5%, 51.0%가 갈등이 있다고 응답해 전국 평균(여성 55.1%, 남성 51.2%)보다 응답 비율이 낮음

(단위: %)

그림5 사회 집단 간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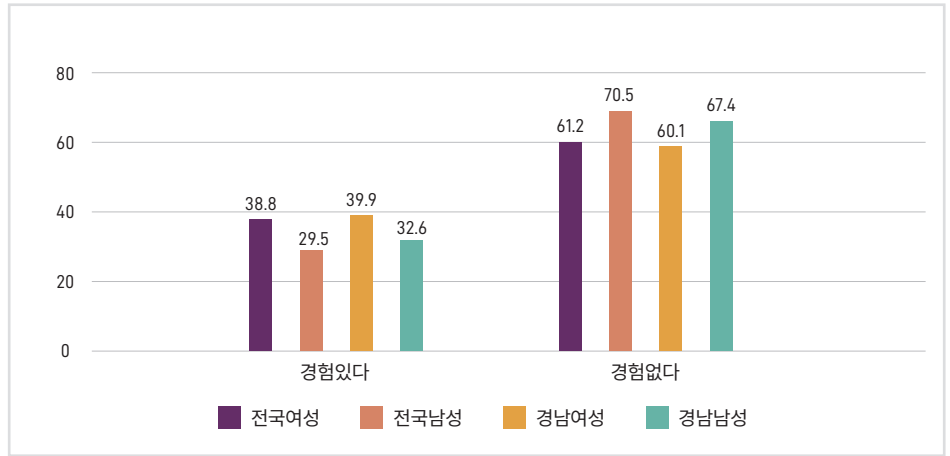


■ 청년 번아웃 경험 여부

- 최근 1년간 업무,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스스로 소진(번아웃)된 경험이 있는지 살펴봄
- 결과에 따르면, 경남 청년 여성들의 번아웃 경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전체 경남 청년 여성 응답자 중 39.9%가 최근 1년간 소진을 경험하였으며, 전국 청년 여성 평균은 38.8%, 경남 청년 남성 32.6%, 전국 청년 남성 평균 29.5%로 나타나 경남 청년들의 번아웃 경험이 전국 평균보다 많게 나타남

(단위: %)

그림6 번아웃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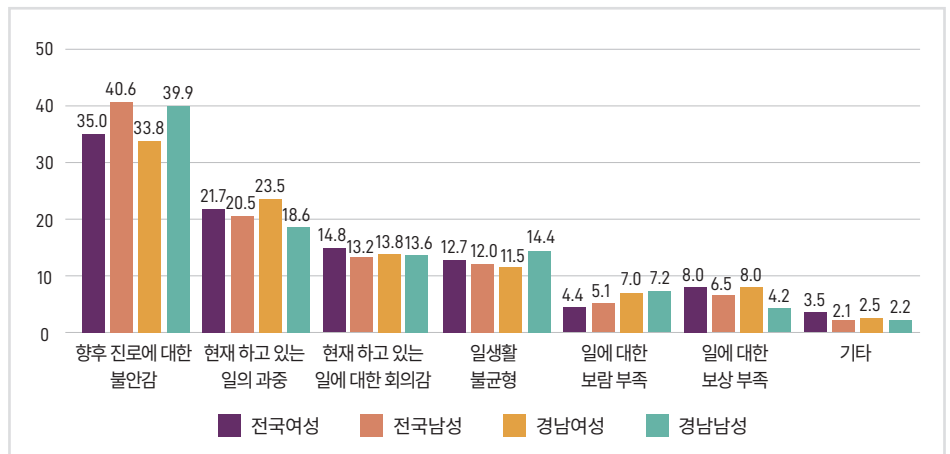


■ 청년 번아웃 경험 이유

-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진을 느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봄. 결과에 따르면, 전국과 경남 청년 모두 '진로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소진 경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한편, 경남 청년 여성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과중'으로 인해 소진을 경험한 비율이 23.5%로 다른 집단과 비교시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 청년 남성은 '일생활 불균형'에 따른 소진 경험 비율이 14.4%로 타 집단보다 높게 확인됨
- 또한 경남 청년들의 경우 전국 청년 평균보다 '일에 대한 보람 부족'으로 소진을 경험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경남 청년들의 직장생활 만족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단위: %)

그림7 번아웃 경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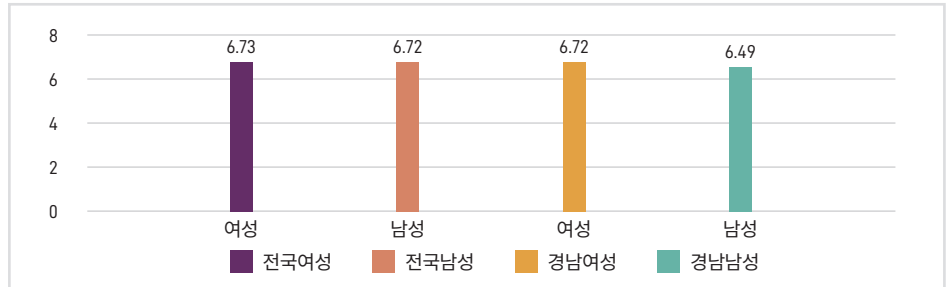
## 04.향후 계획 및 정책 수요

### ■ 전반적 삶 만족도

- 청년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1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살펴봄
- 전국과 경남 청년 모두 대체로 6.7점 내외의 중간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경남 청년 남성의 삶의 만족도는 6.49점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시 다소 낮게 확인됨. 전국 청년 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6.73점, 남성은 6.72점이고, 경남 청년 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6.72점임

(단위: 점)

그림8 삶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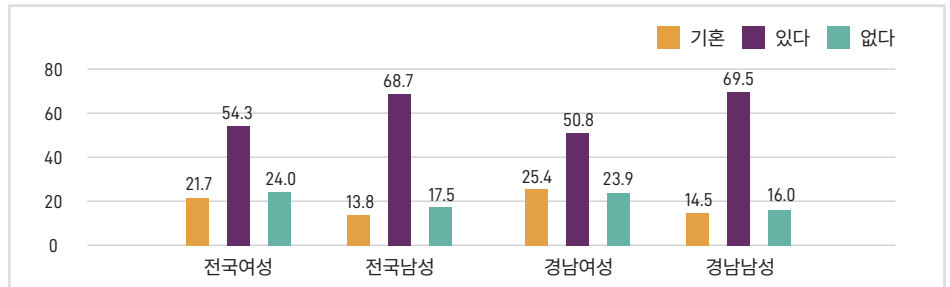


### ■ 향후 결혼 계획

- 대다수의 청년들이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됨
- 전국과 경남 모두 청년 여성들의 결혼 계획이 남성보다 매우 낮게 나타남. 그러나 현재 결혼하지 않은 경남의 청년 미혼여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50.8%만이 결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전국 미혼여성 평균 54.3%보다 더 낮게 나타남

(단위: %)

그림9 향후 결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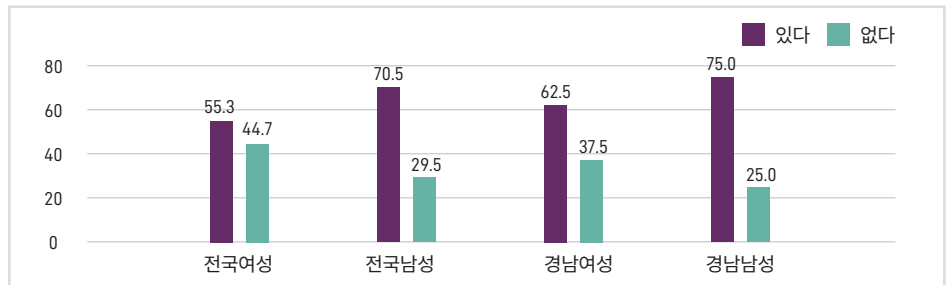


### ■ 향후 출산 계획

-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은 결혼 의향보다 높게 나타남(기혼자 포함). 그러나 출산 의향 또한 성별 차이를 보임
- 전국과 경남 모두 청년 여성들의 출산 계획이 남성보다 낮음. 전국 평균 청년 여성들의 출산 의향은 55.3%로 나타났으나 남성은 70.5%, 그리고 경남 청년 여성들의 출산 의향은 62.5%, 그리고 남성은 75.0%로 확인됨

(단위: %)

그림10 향후 출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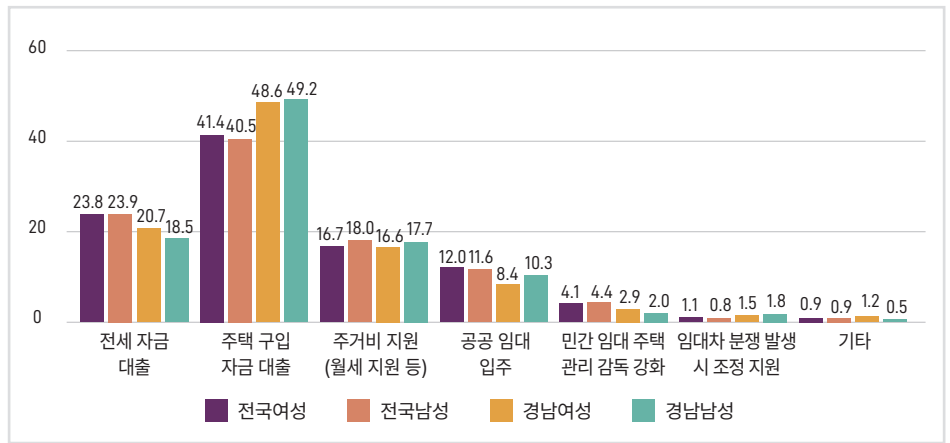


▪ 주거 정책에 대한 수요

-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청년 대다수가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관련된 주거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게 확인됨. 특히 경남 청년들의 해당 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경남 청년 여성의 경우 48.6%, 그리고 경남 청년 남성은 49.2%가 해당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어 전국 평균(여성 41.4%, 남성 40.5%)보다 높게 나타남
- 두 번째로는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정책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정책에 대해서는 경남 청년 보다 전국 청년의 평균 값이 높게 나타나 경남 청년의 경우 전세보다 주택 구입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어 '주거비 지원(월세 지원 등)', '공공 임대 입주', '민간 임대 주택 관리 감독 강화',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 지원', '기타' 주거 정책 순으로 청년들의 요구도가 나타남

(단위: %)

그림11 필요 주거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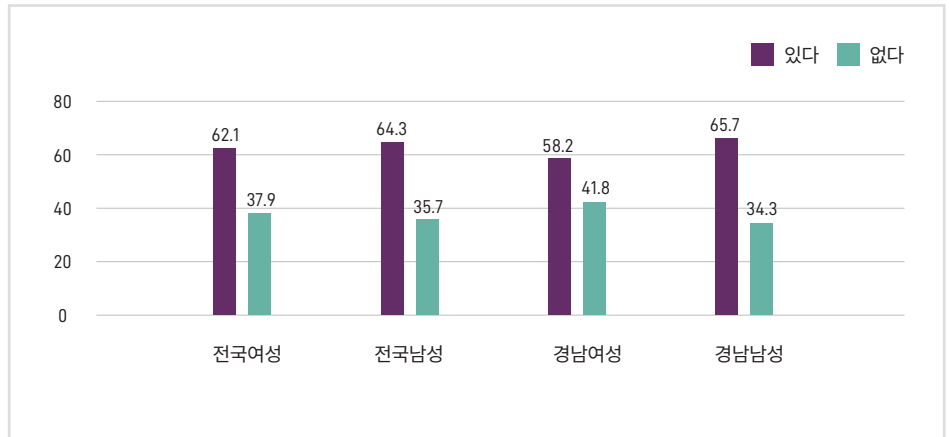


▪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은 다소 높게 확인됨. 전국 평균 청년 여성들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은 62.1%, 남성은 64.3%로 절반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경남 청년 여성들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은 58.2%이고 남성은 65.7%로 나타나 경남 청년 남성들의 공공임대주택 선호가 높게 확인됨

(단위: %)

그림12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 05. 결론 및 향후 정책 방향

### ■ 경남 청년들의 삶 및 향후 정책 방향

- 경남 청년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 개인의 부채 수준은 전국과 비교시 현저히 좋으나, 청년들의 소득 수준은 성별에 관계없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러한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주관적인 계층 의식 또한 낮게 나타났는데, 경남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계층을 중하층 이하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 경남 지역 내 전반적인 노동시장과 임금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또한 경남의 청년들은 사회 집단간 갈등 수준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 그리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에 민감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경남 청년들의 소진(번아웃) 경험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 청년 여성들의 번아웃 경험 비율에 높게 확인됨. 무엇보다 경남 청년들의 경우 일에 대한 회의감과 일에 대한 보람 부족, 그리고 일생활 불균형에서 비롯된 소진 경험이 전국 평균보다 많아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해 보임
- 지역사회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통해 사회 집단 갈등에 관한 민감도를 낮추고 지역에서의 삶에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함
- 청년들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경남 미혼여성들의 결혼 계획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경남 미혼남성들과의 결혼 계획 격차가 전국 수준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보다 큼. 이러한 남녀간의 결혼 의향 차이는 향후 경남 지역 내 인구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지역사회 내 청년 여성들이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함
-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주거 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나타남. 특히 경남 청년들의 해당 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이를 반영한 정책계획 수립 및 확대가 필요해 보임